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

백혜진¹, 이원진^{2*}, 이정원¹, 임유리¹, 장보미¹, 박선옥¹, 박지혜¹, 박황식¹, 장정수¹
¹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부 학생, ²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Sleep Quality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Hye-Jin Baek¹, Won-Jin Lee^{2*}, Jung-Won Lee¹, Yu-Ri Lim¹,
 Bo-Mi Jang¹, Seon-Ok Park¹, Ji-Hye Park¹, Hwang-Sik Park¹, Jeong-Su Jang¹

¹Student, Dept. of Nursing,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Nursing,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과 수면의 질,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D대학교의 간호 대학생 3학년 99명으로 2022년 11월 03일부터 11월 09일 까지 인터넷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8.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과 수면의 질($r=.402, p<.001$), 임상수행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 만족도($r=.532, p<.001$), 수면의 질과 임상실습 만족도($r=.352, p<.001$)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과 임상실습 만족도 관계를 통해 체계적인 맞춤형 학습 교육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될 것이다.

키워드 : 간호 대학생,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임상실습 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sleep quality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99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third grades, and date were collected by using the internet survey from November 3 to November 9, 2022.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8.0.1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r=.402, p<.001$), sleep quality($r=.532, p<.001$)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r=.352, p<.001$). Therefore it will be provided to basic standards for the development of systematic customized learning education.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Sleep qua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Won-Jin Lee(leewj@hit.ac.kr)

Received January 22, 2023

Accepted March 24, 2023

Revised February 22, 2023

Published March 28,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대되면서 간호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간호대학 교육과정에서 현장 임상실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국 많은 병원과 지역사회 실습기관은 감염 확산의 우려와 안전의 이유로 현장 임상실습을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간호 대학생의 현장 임상실습은 매우 제한적이게 되었다[1]. 간호 대학생의 현장 임상실습 제한은 현장 임상실습과 교내 대체 실습 병행으로 이루어지면서 간호 대학생은 간호학에 있어 충분한 학습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학업에 대한 자신감, 집중도 그리고 참여도가 감소하였다[2]. 교내 대체 실습은 학습을 위한 집중도 등을 저해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에 자발적이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한계가 나타난다[3]. 이러한 병행된 임상실습으로 인하여 간호 대학생은 임상수행에서의 자기효능감이 저하되고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저하되고 있다[4].

임상수행 자기효능감은 핵심 기본 간호 술기에서 필요로 하는 투약 술기, 산소 공급, 배뇨, 관장, 위관영양 등 모든 임상수행 술기들을 미래 임상현장에서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및 굳게 믿는 마음을 뜻한다[5]. 임상수행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항별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정맥내 주사 실시 및 유지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수에서 침습적 술기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 점수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5-7]. 이는 현장 임상실습에서 간호 대학생이 대상자에게 직접 술기를 수행할 기회가 감소되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8,9].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점수가 낮은 문항들의 술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임상수행 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별로 현재 간호 대학생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임상수행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 대학생의 현장 임상실습을 최상의 상황에서 수행해야 하지만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지는 실습 시간으로 수면의 패턴이 바뀌면서 수면의 질 또한 저하되어 임상실습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10].

수면이란 인간의 필수적인 삶의 영역이며,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시키고 정신적으로도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생활 행동 양상이다[11]. 수면의 질이 좋다는

의미는 상적인 수면 단계 90분 주기로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10]. 간호 대학생은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장 임상실습 일정까지 모두 진행하여야 하므로 수면의 질 저하가 야기될 수 있다[12]. 이러한 현장 임상실습이 간호 대학생의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3]. 간호 대학생의 수면의 질은 현장 임상실습을 진행하면서 간호 대학생으로서의 현장 임상실습 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14].

임상실습 만족도는 간호 대학생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실습관련 다양한 영역들을 학습하고 경험한 반응을 의미한다[15]. 현장 임상실습에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전문 의료인인 간호사로서 직업적 가치관과 간호 수행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야한다[16].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현장 임상실습 상황에 대해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임상실습 동안 간호 대학생의 피로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감소하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반대로 피로가 감소되면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신감은 상승하였다[17]. 또한 간호 대학생의 수면의 질도 피로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간호 대학생의 피로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은 저하되었다[18]. 간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는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간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19]. 최근까지 연구를 볼 때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를 살펴보는 연구와 피로와 자기효능감과 함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관계를 함께 조사한 연구는 있었으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과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현장 임상실습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학습 교육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

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과 수면의 질, 임상실습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진행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 D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중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선행연구[19,20]를 바탕으로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유의수준(α) .05, 효과 크기(d) .25, 검정력($1-\beta$) .80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탈락률 10% 고려하였다. 탈락률 없이 총 99부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Harvey와 McMurray[21]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Nursing Self-Efficacy Scale(NCSE)와 Parker[22]의 간호사 대상 자기효능감 도구를 안은경[23]이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침습적 영역 13문항, 비침습적 영역 12문항의 하부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자신이 없다' 10점에서 '완전히 자신이 있다' 100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안은경[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2.3.2 수면의 질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 측정 도구는 리즈 수면 평가 질문지(Leeds Sleep Evaluation Questionnaire, LS

EQ)를 김인자, 최희정, 김범중[24] 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응답지를 변경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리즈 수면 평가 질문지인 KLSEQ 도구를 사용하였다. KLSEQ는 4가지 차원으로 잠드는 양상, 주관적 수면의 질, 깨는 양상, 깬 후의 행동으로 구성된 수면 측정 도구이다.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들은 왼쪽 0점(부정적)에서 오른쪽 끝의 100점(긍정적)까지 양극단에 반대가 되는 구절이 쓰여 있다. 전체 수면의 질 점수는 모든 문항의 점수의 합을 문항의 수로 나눈 값이며 0부터 100까지의 범위에 있고 총 수면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KMLS EQ의 절단점수는 ≤ 66 로서 66점 이하의 점수인 경우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정의된다. 김인자, 최희정, 김범중[2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2.3.3 임상실습 만족도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 도구는 이숙자[25]가 개발하고 김귀숙[26]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27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이 도구는 5개의 하위영역인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로 구성되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귀숙[26]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7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2년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편의 표본추출로 선정한 D광역시 D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중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시작 전 첫 페이지에서 간호 대학생에게 연구목적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작성하여 연구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8.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세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임상실습 만족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과 임상실습 만족도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로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11명(11.1%), 여학생은 88명(88.9%)이었다. 연령은 20대 79명(79.8%), 30대 13명(13.1%), 40대 5명(5.1%), 50대 2명(2.0%)로 20대가 가장 많은 연령은 20대이었다. 실습과 관련된 이론 수업에 대한 이해도는 상 40명(40.4%), 중 50명(50.5%), 하 9명(9.1%)이었다. 수면 시간은 5시간 이내 6명(5.9%), 5시간 이상-8시간 이하 72명(70.6%), 8시간 이상 21명(20.6%)이었다. 잠들기 전 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이내 33명(32.4%), 30분 이상-1시간 이내 46명(45.1%), 1시간 이상 20명(19.6%)이었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형태는 현장 임상실습으로만 임상실습을 진행 35명(34.3%), 현장 임상실습과 교내 대체 실습의 혼합으로 임상실습을 진행 64명(62.7%)이었다. 경험한 실습병원의 수는 1곳 4명(3.9%), 2곳 39명(38.2%), 3곳 56명(54.9%)이었다. 해당 임상실습과 관련된 이론 수업의 사전 수강 여부는 모든 내용을 사전 수강 59명(57.8%), 모든 내용을 사전 수강하지 못한 9명(8.8%), 일부 내용만 사전 수강 31명(30.4%)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99)

Variable	Categories	n(%)
Gender	Male	11(11.1)

	Female	88(88.9)
Age	Twenty	79(79.8)
	Thirty	13(13.1)
	Forty	5(5.1)
	Fifty	2(2.0)
Understanding of theory class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Good	40(40.4)
	Fair	50(50.5)
	Poor	9(9.1)
Hours of sleep	Within 5 hours	6(5.9)
	5 to 8 hours	72(70.6)
	More than 8 hours	21(20.6)
The time to fall asleep	Within 30 minute	33(32.4)
	30 minute to 1 hours	46(45.15)
	More than 1 hours	20(19.6)
Method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The field clinical practice	35(34.3)
	Mixed clinical practice	64(62.7)
The number of hospitals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1	4(3.9)
	2	39(38.2)
	3	56(54.9)
Course status of theory class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I learned to all theory classes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59(57.8)
	I not yet learned to all theory classes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9(8.8)
	I learned to several theory classes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31(30.4)

3.2 임상수행 자기효능감과 수면의 질, 임상실습 만족도의 정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은 100점 만점에 71.28±15.15점, 수면의 질은 100점 만점에 64.75±17.05점, 임상실습 만족도는 81.15±10.29점이었다.

3.3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하위영역은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71.28±8.83점 이었다. 하위영역에서 혈당 측정은 90.00±16.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맥 내 주사 실시 및 유지는 56.06±26.4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2.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and Sleep Quality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Variable	M±SD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71.28±15.15
Sleep Quality	64.75±17.05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81.15±10.29

(N=99)

M±SD : Mean±Standard deviation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 자기효능감과 수면의 질,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차이에서는 간호 대학생의 실습과 관련된 이론 수업에 대한 이해도($F=8.76, p<.001$), 임상실습을 경험한 형태($t=0.93, p=.028$)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의 차이에서는 간호 대학생의 수면 시간($F=4.20, p=.018$)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차이에서는 간호 대학생의 실습과 관련된 이론 수업에 대한 이해도($F=3.22, p=.044$), 임상실습을 경험한 형태($t=2.48, p=.01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대상자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과 수면의 질, 임상실습 만족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은 수면의 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402, p<.001$)가 나타났고, 임상실습 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532, p<.001$)가 나타났다. 수면의 질은 임상실습 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52, p<.001$)가 나타났다.

Table 3.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N=99)

Variable	M±SD	R
Blood sugar measurement	90.00±16.66	1
Fall prevention	84.85±15.87	2
Maintenance of trust, maintenance of secret and discussion on problem and settlement with Patients	80.10±19.14	3
Positive business relation building with colleague	79.29±20.57	4
Pressure ulcer prevention	77.98±19.32	5
Cold and warmth therapy for thermoregulation	77.58±21.76	6
The proper use and management of medical appliances	77.17±18.41	7
Thorough materiel management and saving	77.07±19.18	8
Handle the stress of patients	76.77±18.34	9
Relationships building to senior with others smoother	76.46±20.91	10
Oxygenation	75.15±23.45	11
Training to disease control	73.33±18.90	12
Tell of the treatment received	71.01±19.09	13
Discuss the condition of patients with doctor and cooperate doctor for cases of emergency	69.19±20.59	14
Training to self-care	69.19±22.80	15
Give a medicine the exact time and observe side effect of medicine	68.48±20.97	16
Keep drain and management, observe drain pattern	66.87±19.73	17
Take a physical assessment	66.87±19.36	18
Condition assessment of patients and nursing diagnosis	66.87±20.88	19
Take a Tracheal suction	65.25±24.63	20
Intake and output measurement	63.84±21.51	21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indwelling catheter	58.59±26.38	22
Nursing of a patient segregated from the others	57.47±25.57	23
Take enema or give a suppository	56.57±25.92	24
Inject to Intravein and maintain	56.06±26.41	25
Total mean	71.28±15.15	

CPSE :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R : Ranking

Table 4.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and Sleep Quality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o General Characteristics

(N=99)

Variable	Categories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Sleep Quality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Understanding of theory class related clinical practice	Good ^a	1945.25 ±308.9	8.76 ($<.001$) a>b, a>c	682.25 ±162.75	2.00 (.140)	84.28 ±10.03	3.22 (.044)	
	Fair ^b	1705.60 ±369.66		634.2 ±166.37		79.02 ±8.77		
	Poor ^c	1481.11 ±430.18		567.78 ±208.67		79.11 ±15.96		
Hours of sleep	Within 5 hours ^a	1528.33 ±327.8	2.12 (.125)	525 ±121.12	4.20 (.018)	76.67 ±8.57	0.67 (.513)	
	5 to 8 hours ^b	1822.50 ±380.91		635 ±166.53		c>a, c>b		81.22 ±10.20
	More than 8 hours ^c	1715.71 ±362.96		725.71 ±170.22		82.19 ±11.15		
Method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The field clinical practice	1825.71 ±298.36	0.93 (.028)	673.43 ±165.17	1.11 (.761)	84.54 ±11.21	2.48 (.015)	
	Mixed clinical practice	1758.13 ±416.72		633.44 ±173.11		79.30 ±9.33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and Sleep Quality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N=99)

Variable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Sleep Quality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r(p)	r(p)	r(p)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Sleep Quality	.402 ($<.001$)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532 ($<.001$)	.352 ($<.001$)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71.28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의 74.93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7]. 이는 코로나19가 국내에 전파된 이후 교내 대체 실습이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임상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간호대학생의 자신감 부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직접적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해보지 못한 부재가 간호대학생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교내 대체 실습을 통해 다양한 임상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반복 학습을 통해 임상실습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선행 연구 결과도 있다[2]. 따라서 임상실습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실제 접할 수 있는 여러 현장 상황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반복할 수 있는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임상수행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상수행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으로 혈당측정이 9.00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정맥 내 주사 실시 및 유지 영역이 56.0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비교적 술기 수행 위험도가 낮고 비침습적인 특성을 가진 항목이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으며 반면에 침습적인 특성을 가진 항목은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혈당측정에 대한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4,7]. 또한 정맥 내 주사 실시 및 유지에 대한 점수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와 같았다[4]. 따라서 하위영역에서 낮은 순위에 속하는 간호 술기들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원과 간접적으로라도 임상 현장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장 임상실습 경험의 감소가 낮은 침습적 간호 술기 부분과도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의 수면의 질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64.75점으로 KMLSEQ의 절단점수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55.30점, 57.57점, 61.67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4,27,28]. 이는 간호 대학생의 경우 많은 학업의 양과 전공분야에 대한 어려움, 임상실습 적응 스트레스로 수면의 질이 낮은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81.1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92.8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29].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제한된 현장 임상실습과 교내 대체 실습으로 인해 낮아진 간호 대학생의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제 실습 경험의 부재에 대한 보충과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 자기효능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습과 관련된 이론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 일 경우, 임상실습을 경험한 형태에서 현장 임상실습으로만 임상실습을 진행한 경우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 수업에 대한 학업성취도가 높고, 임상현장 실습 경험이 많을수록 간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2]. 실습과 관련된 이론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우 임상실습 술기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상승하며 현장 임상실습으로 직접 실습을 경험할수록 간호 술기에 대해 적극

적으로 임하면서 임상수행능력 또한 향상되기 때문에 임상수행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수면의 질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의 전공과 실습에 대한 스트레스 및 피로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은 낮아진 연구와 유사하다[18]. 이는 간호 대학생의 수면 시간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면 습관의 교정을 통해 수면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형태에서 현장 임상실습으로만 진행한 경우 임상실습 만족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한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실습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상 현장에서의 임상실습이 불가하다면 체계적인 교내 대체 실습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임상수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면의 질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은 간호 대학생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기본 간호 술기를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임상실습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30]. 임상수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수면의 질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과 안정적이고 향상된 수면의 질은 임상실습 환경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게 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과 임상실습 만족도의 체계적인 맞춤형 학습 교육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간호대학 3학년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현장 임상실습과 교내 대체 실습의 혼합으로 경험한 간호 대학생'의 크기에 차이가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가 부

족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만으로는 전국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워 현장 임상실습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과 현장 임상실습과 교내 대체 실습의 혼합으로 경험한 간호 대학생간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여 각각의 변수 요인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여 한 곳의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국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워 향후 여러 대학교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반복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상관관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더 많은 수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문 의료인인 간호사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과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학습 교육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 LINC 3.0 사업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FERENCES

- [1] K. S. Bang, J. E. Kang, E. S. Nam, M. Y. Hyun, E. Y. Seo, S. M. Chae, ... D. A. Shin. (2021). Confidence in clinical performance and job readiness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7(4), 402-411.
DOI : 10.5977/jkasne.2021.27.4.402
- [2] M. S. Cho, J. H. Kim. (2022). The effects of corona depression and self-efficacy on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non-face-to-face class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23(3), 194-204.
DOI : 10.5762/KAIS.2022.23.3.194
- [3] S. J. Kim. (2022). The effects of class content, interaction, and learning environment of online practice due to COVID-19 on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with practice. *Korean Journal of Wellness*, 17(3), 21-27.
DOI : 10.21097/ksw.2022.8.17.3.21
- [4] M. Y. An. (2018). A Study on Clinical Practice Stress, Sleep Quality and Daytime Sleepiness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Incheon.
- [5] M. S. Kim. (2022). Influence of alternative clinical practicum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on nursing practice readiness among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omestic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Busan.
- [6] Y. K. Oh, E. Y. Kim. (2018). The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Self-Efficacy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4(1), 36-43.
- [7] J. J. Han. (2012).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8] K. J. Im. (2015). Effects of simulation educational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conference, 208-208.
DOI : 10.14400/JDC.2018.16.2.203
- [9] Y. E. Jang, K. S. Han. (2021). Online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COVID-19 situation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8), 702-714.
DOI : 10.5392/JKCA.2021.21.08.702
- [10] E. J. Jung, M. J. Kim, Y. M. Lee. (2020). Quality of sleep for nursing students,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201-210.
- [11] Foreman, M. D, Wykle, M. (1995). Nursing standard-of-practice protocol: Sleep disturbances in elderly patients: Alterations in the sleep-wake cycle call for immediate

- assessment and intervention. *A NICHE Project protocol. Geriatric Nursing, 16*(5), 238-243.
DOI : 10.1016/S0197-4572(05)80173-9
- [12] Taillard, J., Philip, P., Coste, O., Sagaspe, P., Bioulac, B. (2003). The circadian and homeostatic modulation of sleep pressure during wakefulness differs between morning and evening chronotypes. *Journal of Sleep Research, 12*, 275-282.
DOI : 10.1046/j.0962-1105.2003.00369.x
- [13] G. H. Kim, H. S. Yoon. (2013). Factors influencing sleep quality in nursing students and n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2*(4), 320-329.
DOI : 10.12934/jkpmhn.2013.22.4.320
- [14] M. Y. An. (2020). Differences in Clinical Practice Stress, Sleep Quality, and Daytime Sleepiness before and afte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5), 121-130.
- [15] S. H. Kim. (2017). Influence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onfidence in practi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between proactive personalit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2), 163-182.
DOI : 10.22251/jlcci.2017.17.12.163
- [16] M. R. Han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fulfillment of the nurse's rol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21*(11), 171-179.
DOI : 10.5762/KAIS.2020.21.11.171
- [17] E. H. Kim, S. R. Suh. (2014). Fatigue and self efficacy o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3), 328-336.
DOI : 10.5392/JKCA.2014.14.03.328
- [18] E. J. Jung, Y. M. Lee.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fatigue, stress and sleep qua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6*(4), 311-316.
- [19] Shin, E. J. (2008). A study related to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practice and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5*(3), 380-386.
- [20] S. M. Kim, S. Y. Park. (2014). Relationship among Attribution Disposition, Self-Efficacy, Clinical Performanc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6), 3409-3421.
DOI : 10.5977/jkasne.2021.27.4.402
- [21] Harvey, V., McMuray, N. (1994). Self-efficacy: a means of identifying problems in nursing education and career progr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1*(5), 471-485.
DOI : 10.1016/0020-7489(94)9017-5
- [22] Parker, L. E. (1993). When to fix it and when to leav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control, self-efficacy, dissent, and exi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6), 949.
- [23] E. K. Ahn. (2000).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for nurses' self-efficacy and work performa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Daejeon.
- [24] H. J. Choi, S. J. Kim, B. J. Kim, I. J. Kim. (2012). Korean Versions of Self-reported Sleep Questionnaires for Research and Practice on Sleep Disturbance.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Korean Academic Society of Rehabilitation Nursing*.
DOI : 10.7587/kjrehn.2012.1
- [25] S. J. Lee. (1980). A survey study o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0*(2), 41-52.
- [26] G. S. Kim. (2002). A survey of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pring year University Proceedings I, 4*, 221-237.
- [27] M. Y. Kim, & H.J. Choi. (2016). Factors Influencing Sleep Patterns during Clinical

Practice Weeks among Nursing Students : Based on Spielman's Model.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8(4), 203-212.

DOI : 10.7586/jkbns.2016.18.3.203

[28] M. J. Kim, H. Y. Kim, H. K. Nam, Y. J. Beon, S. K. Lee, H. J. Lee, ...B. H. Kim.(2021). Sleep Quality and Academic Stress by Character typ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Proceedings of the Spring Conference*.

[29] J .D. Lee, C. S. Lee. (2006). The Effects of Preceptorship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12(3), 434-443.

[30] E. H. Kim. (2015). The relationship among clinical practice stress, fatigu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at one university. *Journal of Health Information Statistics*, 40(1).

DOI : 10.5977/jkasne.2021.27.4.402

백혜진(Hye-Jin Baek)

[학생회원]



· 2018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성인간호, 중환자간호
· E-Mail : hyejinbaek819@daum.net

이원진(Won-Jin Lee)

[중신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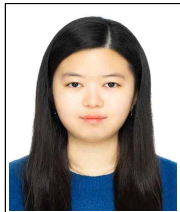


· 201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임상전문간호 석사)
· 202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성인간호학 박사)
· 2021년 8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중환자간호, 간호교육
· E-Mail : leewj@hit.ac.kr

이정원(Jung-Won Lee)

[학생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중환자간호, 정신간호
· E-Mail : ljw9999@naver.com

임유리(Yu-Ri Lim)

[학생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성인간호, 여성간호
· E-Mail : eorhdnr1@naver.com

장보미(Bo-Mi Jang)

[학생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성인간호, 호스피스간호
· E-Mail : bomijang1108@naver.com

박선옥(Seon-Ok Park)

[학생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
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성인간호, 정신간호
- E-Mail : justlove12@naver.com

박지혜(Ji-Hye Park)

[학생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
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성인간호, 호스피스간호
- E-Mail : onlyjesus0918@naver.com

박황식(Hwang-Sik Park)

[학생회원]



· 2018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
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간호, 보건
- E-Mail : ghkdtr1768@naver.com

장정수(Jeong-Su Jang)

[학생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
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성인간호, 정신간호
- E-Mail : jjs040115@gmail.com